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혐오 범죄 급증하는 가운데, 비공립학교와 종교 기반 기관 보호를 위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 발표**

*잠재적인 증오 범죄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비공립 학교 및 문화 중심지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기금*

*뉴욕주 전 지역의 프로젝트 300 건에 총 1,4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1차 보조금 승계*

뉴욕과 전국에서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비공립 학교 및 종교 기반 기관을 포함한 문화 중심지를 혐오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개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욕의 혐오 범죄 대응 지역사회 보안 지원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을 통한 2차 자금 지원으로 207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1차 지원은 1,48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으로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문화,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혐오 범죄나 시설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9년 주정부 예산에서 추가로 2,500만 달러를 확보하여 이 프로그램을 일년 연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혐오와 분열이라는 암은 뉴욕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 및 문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과 폭력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보조금 기금을 통해 많은 조직이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혐오 범죄 통계에 따르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혐오 범죄가 전국적으로, 또한 뉴욕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뉴욕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의 절반 가량이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이 발생했으며, 최근 뉴저지 저지 시티의 코셔 시장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예시바 학교 및 가톨릭 학교가 총격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와 폭력적인 극단주의로부터 유대인 기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이 운영하는 이 보조금은 각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추가로 보안 교육, 카메라, 출입문 보강, 조명 설비 개선, 최신 기술 도입, 및 기타 관련 경비 체제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 50,000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곳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최대 150,000 달러까지 세 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2018년에 집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주지사가 시작한 시작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에서 편견에 의한 위협, 괴롭힘, 폭력으로 발생하는 최근의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 혐오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s Task Force)을 설립했습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는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혐오를 동기 삼아 유발된 범죄 및 편견과 관련된 추세,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현지 이해관계자 및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은 뉴욕의 핵심이며,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혐오심을 전파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비단 취약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올해 주 예산(State Budget) 내에서 지속적인 보건 보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의 전담부서인 혐오 범죄부(Hate Crimes Unit)뿐 아니라 편견 및 차별 사건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을 통해 직통 상담전화 및 문자 회선을 개설했습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이 문자 메시지를 모니터링하여,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처리합니다.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이 적용되는 차별 사례의 경우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혐오 범죄자 체포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진 모든 제보에 5,000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한 모든 뉴욕 주민은 인권국(DHR)의 무료 상담 전화 (888) 392-3644번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또는 81336번으로 "HATE"라는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범죄 신고 또는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자연재해,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며, 대비하고, 대응하며, 이런 상황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